



앗수르의 역사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계획과 현 시대를 향하신 계시적 함의

The God's Plans for Assyria History and Revelational Undertones toward the Present Christianity

저자
(Authors) 심중석
 Shim Chong Seok

출처
(Source) [로고스경영연구 9\(1\)](#), 2011.4, 61-82 (22 pages)
 [Logos Management Review 9\(1\)](#), 2011.4, 61-82 (22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로고스경영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Logos Management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636179>

APA Style 심중석 (2011). 앗수르의 역사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계획과 현 시대를 향하신 계시적 함의. 로고스경영연구, 9(1), 61-82.

이용정보
(Accessed) 대구대학교
 203.207.31.89
 2015/11/26 12:5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앗수르의 역사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계획과 현 시대를 향하신 계시적 함의

심 종 석*

〈요 약〉

본 고는 논제에 기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에 대한 성취가 이 시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신앙적 시사점을 함의하고, 나아가 이로부터 마땅히 되새겨 두어야 할 성경적 사관의 정체성을 바로 분별하여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인류사랑에 대한 실재를 재삼 부각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본 고의 주요 골자는 고대 오리엔트사에 성경의 횡직 기록을 연계하여 앗수르의 정복역사 및 그 멸망의 과정을 되짚어 보는 중에, 앗수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현 시대에 있어서 마땅히 담보해 두어야 할 하나님의 계시적 함의를 추론하는 수순으로 전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묵시적 계시는 앗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신 그 시대와 사뭇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전과 다름없이 현재 역사 속에서도 어김없이 그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앗수르 및 이스라엘과 같이 현 세대마저도 유일하신 여호와와의 주권적 관할 하에 놓여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경우 그때와 마찬가지로 추상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리고 현 세와 내세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 시대를 향하여 회개와 하나님께로의 신앙적 귀의 및 그 결단을 참고 인내하시는 중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 앗수르의 그 참혹했던 정복역사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에 의한 새왕국 건설에 대한 신앙적 사관과 상호 불가분의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 이로부터 현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적 공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등을 도출하였다. 이 경우 본 고상 핵심 키워드로서 위장된 축복은 계시적 함의의 실체로서 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적 주권을 시사하고 있는 바, 이는 달리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는 매개로서 기능한다.

주제어 : 앗수르, 북이스라엘, 위장된 축복, 이사야서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교수, cyrus@daegu.ac.kr

논문접수 : 2011. 3. 3., 1차 심사 : 2011. 3. 17., 2차 심사 : 2011. 4. 4, 게재확정 : 2011. 4. 6.

I. 서론

1.1 문제의 제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각기 서로 다른 왕조를 형성하고, 망국에 이르기까지 서로 극렬히 대립하게 된 단초는, 모름지기 솔로몬(Solomon, 이하 재위 B.C. 965~926)의 학정(虐政)에 기인한다. 곧 역사적으로 솔로몬은 재위 말년에 이르러 대토목 공사와 호화건축에 충당하고자 유다지파를 제외하고, 전 지파에게 중세(重稅)를 부과하여 국론분열의 빌미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1,000여명의 비빈(妃嬪)을 두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내치(內治)에 큰 혼란을 부추겼는데, 이 같은 정사(政事)는 이스라엘이 단일민족으로서 겨레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을 영구히 상실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다.

솔로몬은 인격은 갖추었으나 그의 선대 다윗(David, B.C.1,010~970)에게서 볼 수 있었던 순정과 경건성이 부족했던 까닭에, 현재까지 영화(榮華)의 대명사로 손꼽히고 있음에 반하여, 한편으로 왕국 분열의 비운을 자초한 역사적 인물로서 그 지탄을 면치 못하고도 있다.

솔로몬의 사후, 분단된 이스라엘은 질곡(桎梏)으로 점철된 분열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심판의 때에 이르러 북이스라엘은 200년 19대 왕조를 거쳐 B.C. 721년에 앗시리아(Assyria)¹⁾에게, 남유다는 350년 23대 왕조를 거쳐 B.C. 586년에 바벨론(Babylon)에 의해 멸망의 문턱에 이르러 끝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the Babylonian captivity)를 당하는 것으로 그 대단원의 역사를 마감하게 된다.

이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택함 받은 선민(選民)으로서 한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혈통이 단절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 경우 혈통의 단절이라고 함은 유배지[babylon]에서의 전멸 또는 망국 이후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상실뿐만 아니라 타민족과의 접촉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영원히 상실하고 이민족에 흡수되어 형해화(形骸化)된 사실 이 모두를 함축한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영원한 칭호를 새겨두시고(출03:15), 이스라엘의 계속된 후사(後嗣)를 어김없이 지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차없이 끊어버리신 이유는 그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

아울러 구약성경의 기록은 이상의 의문에 결부하여, 이처럼 서글픈 모습으로 사라지는

1) ‘앗시리아’는 국문표기상 때로는 ‘아시리아’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달리 ‘앗수르’라고도 표기된다. 본고는 논제의 특성에 비추어 성경적 사관(史觀)을 우선시 하고 있음에 따라, 이하 그 명칭을 성경상의 표현을 좇아 ‘앗수르’라고 통일하여 사용한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는 전막(前幕)의 기록마저도 여실히 담고 있는데(사53), 그렇다면 ‘단절된 이스라엘이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게 하는 예표(豫表)라 간주할 때, 이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신앙적·역사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또한 자연스레 앞선 의문에 덧붙여지게 된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상호 견련성(牽聯性) 있는 의문에 기하여, 특히 앗수르에 대한 북이스라엘의 항전 및 멸망의 과정을, 구약성경의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되짚어 보면서, 앗수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현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적 함의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이 경우 당해 추론의 버팀목은 본 연구의 핵심키워드로서 위장된 축복(disguised blessing)에 있음을 앞서 제시해 두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생각건대,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 목적은 대개 인간의 자기인식(自己認識, self-recognition)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로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을 아는 일일 것인데, 다만 여기서 자기인식은 개인 자신의 특성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곧 인간의 본질을 인식함을 의미한다. 환언하면 자기인식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자체를 아는 것이라 특정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로써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은 이를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겠지만, 그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잡이는 ‘과거에 인간이 무엇을 행하여 왔는가?’라고 하는, 곧 역사적 사실(史實)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역사의 가치는 ‘인간이 무엇을 해왔고, 그리하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이를 교훈으로 마땅히 새겨야 하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삶의 형국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특별히 현 시대를 계도하여야 할 기독교동체[敎會]적 소명인식의 차원에서 무감각의 트라우마(trauma) 증상을 앓고 있는 듯 보인다. 예전과 다름없이 지금 현 시대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없이 역사의 한 가운데서 섭리하고 계심이 명약관화하다고 할 때, 작금의 내부적인 사태로서 천안함, 연평도, 핵개발 등의 문제와 외부적으로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민주화의 열기 및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무차별적 테러, 그리고 곳곳에서의 예기치 못한 재난 등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계시적 함의를 처한 환경따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기회와 혜안(慧眼)을 되새겨 보는 것도 크리스천으로서 매우 의미심장한 일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 같은 시각에서 본 연구는 ‘과거에 인간이 무엇을 행하여 왔는가?’라는 화두를 기초로, ‘현 시대 크리스천으로서 지금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역설의 해(解)를 성경적 사관에 의지하여 추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과거에 행한 역사의 주체로서 앗수르를 도구삼아 이를 지금 우리의 본질에 결부시켜, 하나님께 속한 역사의 실재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단초제공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체계는 우선 앗수르의 역사를, 기원과 정립 및 정복역사로 구분하여 개관하고, 앗수르에 대한 구약성경의 기록중에서 특별히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되짚어 보는 중에, 앗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참상과 실재를 신앙의 눈으로 적시하여, 현 시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결론으로 제시하는 수순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II. 앗수르 역사의 개관

2.1 앗수르의 기원과 정립

앗수르는 북부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²⁾, 곧 티그리스강(Tigris R.) 상류를 중심으로 발현하였다. 그 명칭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神)들 중 아수르(Ashur)에 기원을 두고 있다(심종석, 2009, 327면).

앗수르가 등장하기 전, 당시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하고 있었던 세력은 수메르(Sumer)³⁾

2) 고대 오리엔트(ancient orient)의 문명사적 중심은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 성경에서는 아람(Aram)]이다. 메소포타미아는 서아시아 티그리스강[Tigris R.: 성경에서는 히데켈(Hiddekel)]과 유프라테스강(Euphrates R.: 성경에서는 유브라테) 사이의 지역일대를 가리키는 명칭이다(창02:14, 5:18, 36:37, 민23:07, 수01:04, 대하09:26, 스05:03, 렘46:02, 단10:04, 호12:12 등). 메소포타미아는 그리스어로 사이[間]의 의미인 메소(meso)와, 강(江)의 의미인 포타모스(potamos)라는 단어의 조합에서 비롯되는데, 때로는 두 강 사이 들녘(the plains between the two rivers)이라는 미화된 의미로 지칭된다. 지형학적으로 고대 북부 메소포타미아는 대체로 앗수르에 해당하고, 남부는 바벨론이며, 이는 다시 북부를 아카드[Akkad: 성경에서는 악갓(Accad), 창10:10], 남부를 수메르[Sumer: 성경에서는 시날(Shinar), 창11:02, 14:01, 14:09, 수07:21, 사11:11 등]로 구분한다. 다만 메소포타미아를 넓게 지칭하는 경우 북쪽은 터키 산악지대, 남동쪽은 페르시아만, 동쪽은 티그리스강을 건너 현재 이란과 경계인 자그로스(Zagros)산맥, 서쪽은 유프라테스강을 건너 시리아 사막까지를 포함하고, 좁게는 단지 두 강 사이의 지역을 뜻한다(Mcintosh, 2005, Ch. I: Schomp, 2004, pp.5-8; 심종석, 2009, 23-24면). 이 같은 지리적 위치에서 메소포타미아는 이후 많은 민족이 흥망성쇠를 되풀이 하는 역사의 무대가 된다. 곧 인류 최고(最古) 문명 주체였던 수메르를 위시하여, 잘 알려진 민족으로 아카드(Accad)·후르리(Hurrian)·앗수르·바벨론·히타이트(Hittite: 성경에서는 헷족속, 창15:20, 출03:08, 신07:01, 수03:10 등)·히브리(Hebrew)·페니키아(Phoenicia: 성경에서는 베니게, 사23:03, 왕상05:09~18, 왕하06:31 등)·페르시아 등이 이 지역 역사의 주체로써 등장한다. 기간은 대략 3,000년, 범위는 반경 약 1,600km에 달한다(Mcintosh, 2005, pp.3-4).

3) 수메르인에 의한 인류최초의 문명은 티그리스 및 유프라테스 두 강이 걸프만으로 유입되면서 형성된 비옥한 충적토(沖積土)를 기반으로 B.C. 3,500년경 발현하였다. 수메르 문명은 외부와의 접촉 및 계승없이 스스로 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서 그 문명사적 의의가 돋보이고, 이로부터 최고

아카드(Accad)⁴⁾ 세력이었는데, B.C. 3,000년경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부흥을 선도했던 수메르 문화의 영향을 받아 중심 도시국가(city state)⁵⁾로서 아수르(Ashur)가 건설되었고, 이곳을 중심으로 수메르와 셈족(Semites) 계통의 아카드인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동 시대에 앗수르는 수메르·아카드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언어·풍습·신앙 등을 계수하는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양 강대국과의 항전을 통해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성을 체화하게 되었다. 당시 앗수르의 중심부는 입지적(立地的) 우위를 기반으로 당시 천년의 고도(古都) 바벨론에서 산출되지 않는 금속·보석·목재·석재 등의 국제운송을 통한 원거리 무역에 주력하면서, 점차 도시국가의 형태를 벗어나 군사대국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앗수르가 정치적으로 통일되고 군사대국으로서 기반을 확립한 때는 B.C. 19세기 말 경이었는데, 당시 앗수르는 도시국가 아수르 정복을 시작으로 왕국의 기틀을 정립하고, 국제 무역을 통한 국가재정적 확충을 기반으로 연이어 유프라테스강 유역을 장악하였다. 이후 앗수르는 북부 메소포타미아 모두를 예하에 복속시키고 일대 제국을 건설하였으나, 내부의 정치적 분쟁으로 분열되어 이내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하고, 약 1세기 동안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그 지위만을 보존하다가 이후 바벨론을 침입한 후르리인(Hurrians)⁶⁾에게 재차 정복되었다. 이후 앗수르는 후르리인의 미탄니(Mitanni)⁷⁾ 속국으로 남아 근근이 왕조

(最古)·최초(最初)의 문명이라는 수식어가 결부된다(심종석, 2004, 63-64면).

- 4) 셈족(Semites)의 한 갈래로 유목민이었던 아카드의 황금시대는 B.C. 2,350년경이다. 이 당시 아카드는 사르곤(Sargon I) 대왕의 치세하에 있었는데, 그는 수메르인의 도시국가들을 정복하여 고대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통일국가를 건설한 장본인이다. 아카드 왕국이 수립된 후에는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북부를 아카드, 남부를 수메르라고 부르게 되었다. 사르곤대왕은 56년간의 치세 동안 남쪽은 페르시아만에서 북쪽은 지중해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는데, 그는 궁병대(弓兵隊)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군대와 중앙집권적 정치체도로 제국의 면모를 견고히 하였다. 아카드는 B.C. 2,150년경 현재 이란의 자그로스산맥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구티인(Gutian)에 의해 멸망하였다(Smith, 2005, pp.9-11).
- 5) 달리 사원도시(寺院都市)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이는 경제적·종교적 조직이 토착신과 융합되어 세워진 사원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대 도시국가들은 성직자 계급에 의하여 대표되었던 도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들은 관개(灌溉) 및 농경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을 수행하였고, 또한 공물이나 조세의 형태로 생산물을 수집하는 일을 주도하였다. 고대 도시국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중심신전이나 성벽의 존재, 시가시설의 존재, 그리 넓지 않은 특별한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비교적 큰 취락의 병존 등을 그 근거로 삼고 있음이 통례이다.
- 6) 후르리인(Hurrian)은 아르메니아에서 발현하여 B.C. 3,000년경 북부 메소포타미아에 진출한 민족이다. 그들은 B.C. 1,500년경 미탄니(Mitanni) 왕국을 세워, 동쪽은 자그로스산맥에서 서쪽은 시리아(Syria)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였다. 전성기에는 초기 앗수르를 지배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기도 하였다. 후르리인은 히타이트 왕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 신흥세력으로 재등장한 앗수르에 의해 B.C. 1,300년경 멸망한다.
- 7) 미탄니(Mitanni, Naharin) 왕국은 아르메니아(Armenia) 지역을 기반으로 B.C. 3,000년경부터 북부 메소포타미아에 등장하게 되는데, B.C. 1,500년경 전성기를 구가한다. 당시 동쪽은 자그로스산

의 명맥만을 유지하다가, B.C. 14세기 중엽 철치부심 끝에 히타이트(Hittite)⁸⁾와 정략적 동맹을 체결하고, 급기야 미탄니를 공격해 북부 메소포타미아를 회복한 후, 다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B.C. 13세기 초에는 숙적 바벨론을 점령하고, B.C. 12세기 말에서 B.C. 11세기 초에는 히타이트의 쇠퇴를 틈타 페르시아만에서 지중해 연안을 거쳐 소아시아(Asia minor, Turkey)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앗수르는 다시 오랜 침체에 진입하여, 아람인(Aramaean)⁹⁾을 비롯한 여러 민족들의 침입과 반란에 시달렸으며, 영토는 티그리스 강 유역의 좁은 지역으로 축소되기에 이른다.

앗수르의 광대한 영토는 잘 훈련된 강력한 군대, 조직화된 관료군, 완비된 역전제도(驛傳制度) 등에 의해 통치되었으며, 특히 기병과 전차를 갖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집트·바벨론 등 고도의 문화적 발전을 이룬 점령지에 대한 무자비하고도 억압적인 통치는 후일 앗수르 멸망의 화근으로 작용한다. 결국 것처럼 강대하던 앗수르도 바벨론과 메디아(Media)¹⁰⁾ 동맹군의 공격을 받아, B.C. 612년 수도 니네베

맥에서 서쪽은 시리아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였다. 미탄니 왕국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오리엔트 강국으로 급부상하여 소아시아 남동부·북시리아·티그리스강 동부 등에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후 B.C. 1,400년 전반 숙적 히타이트의 침입으로 수도를 빼앗긴 채, 그 명맥만을 유지하다가 B.C. 1,300년경 앗수르의 배반과 미탄니의 내부분열을 틈타 재차 침공한 히타이트에 의해 멸망한다.

- 8) 성경에서 '헷족속'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히타이트는 B.C. 2,000년경 시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몇 개의 소국을 병합하여 탄생한 민족이다. B.C. 1,900년경 소아시아 중부를 지배하였고, 초기에 형성한 도시국가의 세를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 점차 영토를 넓혀, B.C. 1,700-1,600년경에는 후방 북시리아까지 진출하였다. 전성기에는 수메르에 인접한 바벨론까지 원정하기도 하였다. B.C. 1,400년경 히타이트는 당대 유일의 철제련(鐵製鍊) 기술을 바탕으로 전략적 요충지에 견고한 성벽을 쌓는 등 일대 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히타이트의 정립배경에는 당시까지 전무하였던 철제무기와 전차에 의한 새로운 군사전술의 활용이 크게 공헌하였는데, 이는 후일 강력한 군사력으로 최초의 통일제국을 건설한 앗수르에 의해 더욱 계승·발전되게 된다(Bryce, 2005, pp. 355-356).
- 9) 아람인은 초기 유목생활을 영위하다가 B.C. 1,400년 초에 이르러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시리아에 걸친 지역에 정착하였다. 이 지역은 이집트·히타이트·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무역을 좌우하는 상업 도시국가로 발달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성경상 아람은 친근한 관계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아브라함은 아람의 큰할아버지이며,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비롯, 야곱이 아내로 맞은 레아·라헬 등이 모두 아람 사람이다. 한편 아람이 건립되던 B.C. 1,100년경은 이스라엘이 사울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집권체제에 들어가던 때였다. 결국 이스라엘과 아람은 그 세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쟁을 불사하게 된다. 그러나 아람은 사울을 계승한 다윗과의 싸움에서 패한 후, 그 세력이 주춤하게 되고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참고로, 신약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아바(abba: 막14:36, 롬08:15, 갈04:06), 마라나타(maranatha: 고전16:22, 빌04:05), 달리다굼(talitha-cumi: 막05:41),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eloi, eloi, lama sabachthani?: 막15:34) 등은 모두 아람어이다.
- 10) 메디아(Media) 왕국을 건설한 메디아인은 고대 오리엔트 최후의 주역으로써 페르시아[Persia, 구약성경에서의 바사(波斯)]인과 함께 현재 이란민족의 기원을 이룬다. 이들 민족은 다시 지리적으로 구분하여, 티그리스강 동부지역에 거주하였던 민족들을 메디아인이라 부르고, 파르스

(Nineveh)¹¹⁾의 함락과 더불어 멸망하고야 만다.

2.2 앗수르의 정복역사

2.2.1 제국의 기반확립과 군사대국으로의 도약

앗수르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최대의 군사강국으로서 부상하게 된 계기는 아수르-우발리트 1세(Ashur-Uballit I, B.C. 1,363~1,328) 치세 시 미탄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면서부터이다. 이후 그는 자유농민을 중심으로 군대를 조직하여 정기적·체계적인 군사훈련을 통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이들을 실전에 배치하였다. 이때부터 군사조직과 철제무기에 의한 군사력 강화가 급진전하게 된다.

이 같은 군사력 강화의 실질적 배경은 오랜 시기를 통하여 축적한 경제적 부의 창출에 있었다. 즉 앗수르는 바벨론·엘람·페르시아·소아시아·시리아·페니키아를 연결하는 무역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던 까닭에, 유리한 입지적 조건에 편승하여 자연스럽게 상업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요컨대 당해 시기는 상업주의를 통해 그간에 축적하였던 부를 기반으로 강력한 군국주의적 지배력을 결합하여 독자적인 군사대국으로 발전되어 가는 과도기였다.

이후 앗수르는 티글라트-빌레셀 1세(Tiglath-Pileser I, B.C. 1,114~1,076) 재위 시 재차 급성장하였다. 그는 앗수르 내부에 잔류해 있던 유목민족들을 소탕하고, 차례로 본토 서방에 침입한 여타 유목민들을 정벌하였다. 나아가 소아시아 동쪽 흑해(Black Sea) 연안까지 진격하여 그곳 철의 주산지를 정복하였다.

그는 유프라테스강 중·상류에서 소아시아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지배하에 두었는데, 이로 인하여 동쪽 지중해 연안의 많은 해양국가 및 정착민족들로부터 정기적인 조공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선대왕들이 그토록 염원하였던 남·북 무역로를 확보하여 앗수르의 경제적 부를 극대화 하였다.

(Fars) 지역에 거주했던 민족들을 페르시아인이라 칭한다. 이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 거하고 있었던 까닭에, 인도-유럽인들은 필연적으로 티그리스 동남방에 거주하였던 엘람·바벨론·앗수르 등과의 대립관계에 자연스럽게 휘말리게 되는 운명을 접한다. 한편 이 지역에 거주하였던 민족으로서, 예를 들면 메디아인·페르시아인·스키타이인 등의 공통된 풍습 중에 특이할 만한 사실은 어느 민족이나 기마술(騎馬術)에 매우 능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메디아인은 고대 근동에 기병전술을 도입한 최초의 민족으로 칭해진다. 이를테면 그들의 기마전술은 단지 히타이트처럼 전쟁수행 시 단순히 말과 전차를 동원한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쟁의 과정에서 탁월한 기마술을 바탕으로 치밀한 전략과 체계적인 전술에 의하여 전쟁을 수행하였다고 하는 특성이 있다.

11) 성경에는 '니느웨'라 한다(창10:11, 왕하19:36, 사37:37, 은01:02, 나훔03:07, 습02:13 등).

B.C. 1,077년 티글랏-빌레셀 I세의 사후, 서방민족 중에서 특히 아람인의 침입이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아람은 이집트·ฮิต타이트·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지점이 주요 근거지였던 까닭에, 고대 근동의 무역을 좌우하는 상업국가로 발달하였다. 이에 따라 앗수르의 통제 하에 있었던 무역도 심한 장애를 받지 않을 수 없었던 바, 그 결과 국내에는 경제공황의 대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내부 분열 또한 극심하였다(Smith, 2006, pp. 28-35).

이후 1세기 이상 지속된 아람의 침입과 압박은 비단 앗수르에 그치지 않고 바벨론까지 미치게 되었는데, 이 같은 아람의 군사적 실행행사는 B.C. 1,000년경에 이르러서야 수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이 앗수르에 흡수된 이유는 문화적 독자성이 결여되었고, 정치적으로도 통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2.2.2 공포와 살육의 유혈정복정책

B.C. 10세기 말은 앗수르의 쇠퇴기로서 당시에는 요행히도 주변 국가 또는 민족들과 별다른 분쟁이 전개되지 않아 정치적 붕괴만은 면할 수 있었으나, 경제적 몰락은 감수하여야 했다. 그 결과 영토는 티그리스강 동쪽 연안을 따라 작고 보잘 것 없는 지역에 국한되었다. 이 같은 암흑시기에서 아람은 앗수르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같은 절치부심의 시대적 곤궁함은 후일 앗수르 군국주의가 가일층 무자비하게 변모할 수 있게 한 암묵적 동인으로 작용한다.

앗수르는 B.C. 912년 이 같은 지루한 곤궁에서 탈출하는 일대 전환기를 마련하는데, 이를 주도한 왕이 아닷-니라리 II세(Adad-Nirari II, B.C. 911~891)이다. 그는 아람의 입지를 무력화 시키고 바벨론을 격파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방의 무역로를 재탈환하였으며, 나아가 자그로스 산맥까지를 그 세력범위에 두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제국의 통치조직을 발달시키지는 못하고, 다만 피정복국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력행사를 통해 조공에 의한 국권의 승인만을 통제하였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관개시설(灌溉施設)을 정비하고 이전보다도 곡물의 저장을 늘리는 한편, 말의 수효를 늘리고 수도 아수르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이로부터 내부의 힘을 축적한 앗수르는 일단 피정복 국가에 대하여 조공과 국권의 승인을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피정복국가가 앗수르를 배반하였을 경우에는 무자비한 살육으로써 대응하였다. 곧 앗수르의 피지배 민족에 대한 기본정책은 무엇보다도 피정복국가로 하여금 철저한 복종을 각인시켜 두고자 함에 있었는데, 그 방편은 주로 배반의 도시들에 대한 학살·약탈·방화·살육으로 점철된 철저한 압제와 초토화에 있었다(Boardman et al, 2008, pp.10-12).

B.C. 9세기경 아수르나시르팔 II세(Ashurnasirpal II, B.C. 883~859)는 앞선 선대의 잔

혹한 지배정책의 기초를 낱알이 실현한 전제군주이자, 한편으로 고대 오리엔트의 초강성 군사대국 앗수르의 기초를 견고히 다진 장본인이었다. 재위 시 그는 앗수르 북서쪽에서 횡행하였던 산악민족을 토벌하고, 타우르스 산맥을 경계로 한 북방 무역로를 확보하였다. 또한 티그리스 상류 농경지를 확장하였고, 카르케미시(Carchemish)¹²⁾ 남방 아람인을 토벌하고, 연이어 오론텔스강(Orontes R.)을 넘어 직접 시리아·페니키아의 여러 도시를 정복하였다(Smith, 2006, pp.36-45).

그는 또한 현재의 님루드(Nimrud, Kalhu)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여 이곳에 운하를 끌어들이어 인근주변에 관개시설을 정비하기도 하였는데, 이 공사에는 어김없이 피정복민족의 포로들을 동원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앗수르의 영토를 보다 견고히 확장하여 명실공히 군사대국으로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당시까지 고대 오리엔트의 정복자들은 대부분 영토를 확대하고 반란을 진압함에 있어서 예외없이 피정복민족에게 잔혹하고도 끔찍한 압제정책으로 일관하였는바, 특히 그 잔혹성에 있어 아수르나시르팔은 선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일례로 그는 반란의 소식을 접하면 시기와 때를 불문하고 어김없이 징벌하고, 동시에 가차없는 잔학행위를 일삼아 주위 열방에게도 경고함과 동시에, 이를 벽화나 기념비에 기록하여 후일의 예표로 삼아 두기도 하였다(심종석, 2004, 372~373면).

2.2.3 군사대국으로서의 부상과 철권정치

아수르나시르팔에 이어 등극한 살만에셀 III세(Shalmaneser III, B.C. 858~824)는 서쪽으로 시리아 전역과 팔레스타인, 남쪽으로 바벨론 전역에 걸친 영토를 정복하였다. 또한 유프라테스강 중·상류유역 카르케미시 인근 가신국(家臣國) 등을 차례로 속주(屬州)로 전환함으로써 그간 이원적 조직에 의한 분할통치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살만에셀 III세 영토확장에 있어 가장 유명한 전쟁은 B.C.9세기 중엽 시리아 내륙 상업 도시인 다마스커스(Damascus)¹³⁾을 맹주로 이스라엘·암몬(Ammon)¹⁴⁾·하맛(Hamath)¹⁵⁾ 등 12민족 도시국가가 가담한 반앗수르 동맹군과의 칼카라(Karkara) 전쟁이었는데(왕상 20),¹⁶⁾ 이 전쟁에서 앗수르는 대승하여 소아시아 및 가나안 일대의 철·은·삼목 등을 수

12) 성경에서는 '갈그미스'라 칭한다(대하 35:20, 사10:9, 렘46:02 등).

13)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칭한다(사07:08, 08:04, 10:09, 17:01, 17:03 등).

14) (사11:14).

15) (사10:09, 11:11, 36:19, 37:13 등).

16) 당시 전쟁기록은 살만에셀 III세의 전승기념비에 담겨있는데, 그 기념비에는 반앗수르 12연합군의 규모가 어떠했으며 살만에셀 III세는 그들을 어떻게 정복했는가를 상세히 기록해 두고

중에 넣은 대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김태훈, 2003, 10면).

그러나 살만에셀 III세 통치 말년에는 앓수르 본국에서 왕위계승을 둘러싼 궁정내부의 반란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니네베·아수르 등 주요 도시의 반란이 촉발되었다. 당시 반란은 주변 열국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곧 앓수르 북방의 우라르투(Urartu)¹⁷⁾에 의한 북방 무역로의 위협, 동방의 신흥세력으로서 메디아인들의 세력 확장, 남방 바벨론의 아람계 칼데아인(Chaldea)¹⁸⁾의 해상무역에 의한 국력신장 등이 그것이었다(Mcintosh, 2005, pp. 97-100; Bauer, 2007, 338-343).

요컨대 앓수르의 역사는 한번 영토를 확장한 이후 연이어 내란과 혼란이 발발하고, 이윽고 이를 진압한 다음에는 또 다시 영토의 세력 판도가 더욱 확대되는 식의 공식적인 역사적 경과를 더듬어 가는 특성을 엿볼 수 있다.

B.C. 8세기경 티글랏-빌레셀 III세(Tiglath-Pileser III, B.C.745~727)¹⁹⁾ 재위 시는 앓수르의 전성기였다. 그는 앞서 언급한 살만에셀 III세 시의 위협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역전체제(驛傳體制)를 정비하고 군대를 재조직하였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행정개혁을 시도하여 국가내부의 안정에 주력하였다. 그를 앓수르 제국의 실질적 건설자이자 통치의 제왕으로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Wilke, 1995, pp.4-8). 아울러 그는 본토 외의 정복지에는 전통적 지배자를 본국으로 이송하거나 가능한 제거하고 속주로 대체하였다. 한편 속주로 편입되지 않은 정복지는 가신국으로서 토착군주의 지배가 허용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감찰관(監察官)을 두어 만약의 반란과 배신에 적절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Ascalone 2005, pp.58-65).

티글랏-빌레셀 III세가 치중한 가장 중요한 개혁은 군대제도의 개편이었다. 당해 군대조직의 개편으로 앓수르의 전 국토가 요새화되고, 나아가 앓수르에 의해 정복된 피지배국가의 군대들도 때마다 주력군으로 편입되어 거대한 군사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한편 당시 피지배 민족에 대한 가장 특징적 지배정책은 강제이주정책(強制移住政策)이다. 대개 그 목적은 초기 반란을 일으킨 지방이나 도시전체를 송두리째 새로운 환경으로

있다. 그 내용은 “나는 칼카라에 접근해서 그 도시를 파괴시키고 찢었다. 그리고 칼카라를 손에 넣었다. 칼카라왕은 다메섹 벤하닷으로부터 전차 1,000대, 기병 1,200명, 보병 20,000명과 이스라엘왕 아합으로부터 마병 2,000명, 보병 10,000명을 지원받았으나, 그들 시체는 강을 막아 댐을 만들었고, 골짜기마다 피가 흐르는 위대한 승리를 얻었다”와 같다(심종석, 2004, 376-377면).

17) B.C. 9세기에서 B.C. 6세기에 걸쳐 소아시아 터키동부를 지배한 왕국으로 달리 아라랏(Ararat)이라 한다. B.C. 8세기 초 전성기를 구가하였고, B.C. 713년 앓수르 사르곤 II세에게 대패하여 소멸의 길을 걷는다. B.C. 6세기 초 메디아에 종속되었다가, B.C. 585년 아케메네스 캄비세스 I세에게 멸망되었다. 청동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난 민족이었다.

18) 성경에서는 ‘갈대아’로 칭한다(사13:19, 23:13, 사43:14, 47:01, 47:05, 48:14, 48:20 등).

19) 성경에서는 불(Pul) 또는 ‘디글랏 빌레셀’로 칭해지고 있다(왕하15:19~29, 16:07, 16:10, 대상05:06, 05:26, 대하 28:20 등).

바꾸는데 있었는데, 이는 반란의 기미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그들의 민족혼 또는 신에 대한 신앙심을 아예 말살시키기 위함에 있었다.

요컨대 강제이주정책은 주변 열국들에게 앗수르의 극악무도한 잔학성을 떨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또한 앗수르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여 영원한 가신국으로 예측될 수밖에 없도록 이르게 한 민족적 상실감으로 작용하였다.²⁰⁾

2.2.4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통일

티글랏 빌레셀 III세를 이어 등극한 살만에셀 V세는 치세 겨우 5년 만에 휘하의 장군 사르곤(Sargon)에 의해 왕위를 찬탈당한다. 곧 B.C. 721년 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찬탈한 사르곤은 자칭 사르곤 II세(Sargon II, B.C. 721~705)로 즉위하였다. 그는 등극하자마자 지난 3년 동안 포위를 계속해 온 유다의 사마리아를 함락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속주로 삼는데 성공한다.

사르곤은 치세 초기에 우선 앗수르 본토에 거주하였던 자국민의 병역을 면제하여 이를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 곧이어 당시 반란에 적극적이었던 서방 타우르스 산맥을 거점으로 활동한 후기 히타이트 여러 소국들을 토벌하였다.

한편 사르곤 치세 당시 국내에서는 티글랏-빌레셀 III세 때 앗수르 직할로 편입된 바벨론이 앗수르 본토에 버금가는 주요 거점으로서 제국의 또 다른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었다. 당시 바벨론에서는 반앗수르 세력의 저항이 상당했는데, 곧 사르곤이 즉위한 직후, 페르시아만 연안의 아랍계 칼데아인이었던 므로닥 발라단(Merodach Baladan)²¹⁾이 엘람의 원조를 받아 바벨론에 입성하여 바벨론 왕이 되고, 이후 10여 년 동안 앗수르에 대항하고 있었다(Anderson, 2005, pp.415-416).

사르곤은 그동안 이집트의 지원을 받고 하맛을 맹주로 하는 수리아 여러 도시의 반란군을 칼카라(Karkara)에서 격파하고, 또한 역시 이집트의 지원을 받은 유다 · 모압(Moab) · 아스돗(Ashdod) 등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이러한 주변 열국의 정복과 국내의 민심을 등에 업고 사르곤 II세는 드디어 B.C. 710년 바벨론의 므로닥 발라단의 왕국을 공

20) 티글랏-빌레셀 III세와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주목할 사실은 다음과 같다. 살만에셀 III세 사후, 약 80년간은 앗수르의 쇠퇴기로서 앗수르와 이스라엘 간 특별한 전쟁은 없었다. 다만 앗수르 기록에는 B.C. 765년과 B.C. 759년에 큰 역병이 있어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B.C. 763년에는 큰 일식(日蝕)이 있었다고 한다. 설은 이때 요나(Jonah)가 니네베로 파송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이때 하나님은 요나를 앗수르 수도였던 니네베로 보내어 그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당시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네베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재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회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가 B.C. 745년에 총독으로 있던 티글랏-빌레셀 III세가 정권을 잡은 때로 추정되고 있다.

21) 성경에서 므로닥 발라단(Merodach baladan)은 유다 히스기야왕(B.C. 726-698)을 문병하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내기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사 39:01, 왕하 20:12 등).

격하여 2년 뒤 마침내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바벨론에 입성하게 된다. 실로 사르곤의 대정복 이후, 고대 오리엔트에서는 앗수르에 대적하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Nardo, 2009, 49-53).

사르곤의 뒤를 이은 센나크헤립(Sennacherib, B.C. 704-681)은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수도를 니네베로 재차 옮기고 성곽 및 왕궁 등 대제국에 걸 맞는 수도로서의 일신을 꾀하고 이를 재건하였다. 즉 센나크헤립은 수도 니네베의 방벽을 견고히 하고, 신전을 재건하고, 화려한 왕궁을 건립하였다. 이에 주변 민족들을 동원했음은 물론이다. 이후 센나크헤립은 궁정내부의 혼란에 휩싸여 바벨론에서 그의 아들들에게 피살되는 운명을 접한다(Mcintosh 2005, pp.105-108).²²⁾

뒤이어 등극한 에살하돈(Esarhaddon, B.C. 680-669)은 즉위와 동시에 마르둑(Marduk) 신전을 재건하여 바벨론의 민심을 결집하는데 주력하였다. 나아가 그는 오랫동안 적대관계에 있었던 스키타이인(Scythian)²³⁾들과 화해하여 그 후방에 대한 화근을 제거하였다. 이는 에살하돈 치세 시의 가장 큰 사건으로서 이집트 정복에 직결되는데, 곧 그는 이집트 원정 당시까지 막강한 군사력과 외교적 수완을 적절히 결합하여 이를 기반으로 주변 열국에 일시적 포용정책을 취함과 동시에 이집트를 포함하여 그간 앗수르의 경제적 변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대로부터 반란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었던 수리아·페니키아·팔레스타인 및 이집트 원정에 나서게 된다. 그 도상에서 에살하돈은 반앗수르 동맹에 참여하고 있었던 티르(Tyre)²⁴⁾를 점령하고, 당시까지 그 유례가 없었던, 약 50km에 이르는 이집트 사막을 가로질러 마침내 이집트 수도 멤피스(Memphis)를 점령하였다. 그 결과로서 에살하돈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고대 이집트의 문명을 하나로 묶어 통치한 최초의 왕으로서 지위를 점한다.²⁵⁾

22) 성경에서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왕하 19:37). 참고로 히스기야왕과 센나크헤립(성경에서는 ‘산헤립’)의 18만 5천의 궤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대하32:22, 사36:01, 37:17, 37:21, 37:37 등).

23) 스키타이(Scythai)는 연맹적 성격이 강한 국가였는데, B.C.900년경 가장 일찍 유목민화 하였다. 강력한 기마민족이었으며,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참고로 스키타이 문화는 화북을 거쳐 전국시대의 중국문화에 영향을 끼쳤으며, 다시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파급되었다. 거울은 그들이 전한 대표적 문물이다(Anglim, et al, 2002, pp.97).

24) (사23:01, 23:05, 23:08, 23:15~17 등).

25) 이리하여 에살하돈은 ‘이집트 모든 왕의 왕’이라는 최초의 칭호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집트와의 전쟁에 관하여 에살하돈은 그의 전승기념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심종석, 2004, 399-401면). “팔레스타인에서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까지 15일에 걸친 진군에는 나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이집트의 왕 타하르카(Taharqa), 곧 위대한 모든 신의 저주를 받은 자에 대해서 피비린내 나는 공격을 가했다. 나의 화살은 그에게 고치기 어려운 상처를 다섯 번이나 입혔으며, 수도 멤피스를 포위하고 갠도·돌파구·공성전차 및 사다리를 사용하여 반나절의 싸움으로

에살하돈은 치세 중 영향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었던 바벨론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바벨론을 속주로 하는 이원분립체제를 구현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에살하돈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대제국 앗수르를 멸망으로 이끈 결정적 동인이 되는데, 곧 그가 의도한 바와는 반대로 바벨론 내에는 엘람인·칼데아인 등 반앗수르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후 바벨론의 독립에 대한 열의는 갈수록 높아져, 결국 약 20년 뒤 당시 세계 4대 강국의 하나인 신바벨론 왕국으로 탈바꿈하여 급기야 앗수르 제국을 멸망으로 이르게 한 중추세력으로 등장한다.

에살하돈에 이어 아수르바니팔(Ashurbanipal, B.C. 668~626)은 선왕의 유업을 이어 B.C. 667년 이집트를 침입하여 상이집트 수도 테베(Thebe)에 도달한다. 이후 앗수르는 B.C. 663년 제차 침공하여 멤피스를 공략하고 테베를 정벌하였다. 당시 테베는 고대 오리엔트에 있어 막강한 경제력을 축적하고 있던 도시였으나, 당대 최고의 군사대국 앗수르에 끝내 무너진다. 이후 고도(古都) 테베는 다시금 역사 앞에서 재기하지 못하였다.

이후 앗수르는 정치적·경제적으로 사양길에 진입하게 되고, 이로부터 국제정세에 있어 수동적 위치에 서게 된 앗수르는 그나마 용장이자 노련한 치세의 균형 감각을 갖고 있었던 아수르바니팔왕의 통솔하에서 그나마 제국으로서의 명목상 지위만을 보존하다가 B.C. 612년 회대의 잔인한 역사를 땅에 묻고야 만다.

III. 앗수르를 향한 여호와의 계획

3.1 진노의 막대기

본 장의 단서로서, 앗수르를 향한 여호와의 계획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낱낱이 대변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신앙의 눈으로 조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예언자로서 이사야의 위대성은 그의 정치적인 판단력에서가 아니라 국제정세를 통찰함에 있어서의 종교적·신앙적 관점에서 보다 여실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사야의 마음속에 화고부동하게 자리잡고 있었던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이시며, 앗수르는 단지 여호와의 공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은 일편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확신이었다(강성일, 2003, 330면). 이사야는 이러한 확신을 그의 신탁(神託)에

그 수도를 함락하였다.” 여기서 타하르카는 성경에서 디르하가(Tirhakah, B.C.691-664)로 칭하고 있다(왕하19:09, 사37:09). 이집트 25왕조 최후의 왕으로, 히스기야를 돕고자 센나크헤립에게 대항하기도 하였다(왕하19:09, 사37:09).

기한 기록에서 통렬히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the rod of anger)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사10:05-06).

물론 앞서 살핀 앗수르의 제반 통치자들은 그들이 여호와와 손에 붙잡힌 일편의 도구라는 것을 깨닫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정치적 목적들을 그들 스스로가 조각(彫刻)한 신성(神性)에 의지하여, 다만 그에 부합하게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앗수르의 무차별한 진격과 정벌 뒤에는 숨은 배후로서 원수의 분노조차 여호와와 목적에 기여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최고 주권이 추상같이 존재하였던 바, 이 또한 앗수르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역사는 인간의 번덕이나 막강한 군사를 거느린 민족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님이 불변의 원칙이라 할 때, 앗수르에 의해 자행된 그 참혹한 전란 또한 예언자[Isaiah]의 눈에 는 하나님 심판의 표적으로서, 여기에는 택한 선민 또한 그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결국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후일의 이 같은 여호와와 심판이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부정(不淨)과 이교(異敎)를 척결하라는 요구였음을 망국의 도상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우를 범하였다.

요컨대 역사의 주관자로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힘입어야 한다고 하는 이사야의 호소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름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 바, 예지적(叡智的) 선지자로서 이사야는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중략)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발함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잠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일 것이라”(사 28:16-19).

3.2 오만한 자에 대한 징벌적 계시

본래 앗수르의 국력은 여호와께서 부여하신 제한적이고도 한시적인 권능(權能)으로서, 그 힘은 마땅히 하나님이 스스로 원하시는 때에만 억제되거나 거두어 질 수 있었다. 이사

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임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소망은 백성들의 행실이나 위정자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과 맺은 여호와와의 언약 및 그 언약에 대한 시종여일(始終如一)의 신실성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한편 이사야는 여호와와의 이 같은 심판의 배후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스스로 참고 인내하시는 중에 구원하고 갱신시키려는 구속사적 의지가 담겨 있음을 깊이 깨닫고,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통한 정화 이후에야 비로소 그 오만했던 앗수르 제국의 정벌을 예견하였다.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시,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중략)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사28:21-22, 29).

3.3 심판의 도구

앗수르는 그들의 신이 자신들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에 의지하여, 그토록 잔혹한 폭정과 압제로 이스라엘을 침탈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도 다름없이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곧 그들 자신이 유일하신 여호와와의 주권적 관할 하에 놓여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스라엘은 앗수르와는 그 처지가 달랐다. 곧 여호와께서는 인격적 언약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꿰뚫어 통찰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억 속에 지울 수 없이 각인된, 곧 그들 선대들을 통한 각양의 결정적인 역사적 체험들을 통해 그들 자신이 여호와가 누구이며, 여호와가 그들에게 어떤 생활양식을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셨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까닭에, 그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더 중대하고도 참혹한 심판을 받아야 했다. 그 결과로서 앗수르는 여호와의 도구로써, 곧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참한 살육과 피비린내 나는 공포의 압제적 수단으로써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중략)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중략)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쥔레와 가시를

삼키며 뻥뻥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진노로 팔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에 쏘와 같을 것이라. (중략) 여호와와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사09:14-21).

3.4 회개의 촉구를 위한 메신저

앗수르의 사르곤 II 세는 3년간의 포위공격 끝에 B.C. 721년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끝내는 멸망시켰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이 같은 이스라엘의 파괴와 멸망에만 그 뜻을 두고 계셨던 것은 아니다. 짧지 않은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호와와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줄곧 역사하셨다. 이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悔改)의 촉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회개란 이스라엘 생명의 근원인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신앙적 충성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화답하는 것이며, 이에 걸맞게 그들 생활방식에서도 일대 변혁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곧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ye not returned unto me)라는 당대 선지자의 계시는 무릇 여호와 계획의 번번한 실패를 의미하였던 바, 이는 달리 완악한 마음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반회개적(反悔改的) 실상의 예표가 되었다(암04:06-11, 학02:17 등).

3.5 바벨론 유수의 예정

앗수르의 티글랏-빌레셀 III 세는 대원정(大遠征)의 도상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진군하여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전역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항전하는 열방 민족들에 대하여, 예컨대 수족을 절단하거나, 피부를 벗기고 절개한 후 소금을 뿌리거나, 신체를 육시(戮屍)하거나, 말뚝에 시체를 꽂아 세워두거나, 머리를 잘라 효수(梟首)하는 등 가차없는 살육을 자행하였다.²⁶⁾ 여기에 이스라엘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이처럼 티글랏-빌레셀 III 세가 원정 시에 피지배민족으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를 불러일으킨 이유는, 무엇보다도 민족주의를 분쇄하고 피정복지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군사정책에 있었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피정복민들을 그들 본향(本鄉)에서 아예 뿌리를 뽑아 앗수르 제국 내의 먼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그 땅에는 또 다시 다른 여타 민족들을 이주시켜 앗수르 속주로 삼고자 함에 뜻이 있었다.

26) 이는 부조(浮彫)로 각인되어 현재까지 전하고 있고, 당해 유물은 현재 대영박물관(<http://www.thebritishmuseum.ac.uk>)에 소장되어 있음을 참고한다.

이스라엘 또한 여타 피지배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비참한 체험을 통해 후일 어김없이 바벨론 유수(幽囚)에 임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여호와께서 그들 선대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본향 땅에 대한 신앙적 삶의 근원을 영구히 상실하게 되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추상같은 심판의 결과였고, 이로부터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여지없이 박탈당한 채, 이후로의 역사에서 제기하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운명을 접하고야 만다. 그 한 중심에 심판의 도구로서, 아울러 바벨론 유수의 집행자로서 다름 아닌 앗수르가 있었다.

3.6 구속사적 계획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용서를 알고, 이로부터 또 다시 영원한 계약의 새로운 관계성 정립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 역사 가운데서 추상같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체험하여야 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또 다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언약을 선포하시게 되는데, 이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속성을 그들에게 여실히 각인시켜 두기 위함에 있었다. 그 실체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으로서,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있었다. 이를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고 있다.

“(중략)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중략)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사53:01-12)

IV. 결 론

4.1 앓수르의 역사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계획

이상과 같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조명해 본 앓수르는 고대 오리엔트에 속한 제반 민족의 기원과 정체성을 무자비한 유혈정책과 강제이주정책을 통해 말살하고자 했던 회대의 잔혹한 군사대국이었다.

앓수르의 이 같은 유혈정복정책은 망국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전쟁과 살육으로 점철되었는데, 이는 당시 고대 오리엔트 전 지역이 앓수르에 의한 공포와 압제의 연속하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성경적 시각에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칭호로서 선민, 곧 택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말씀의 범위에 견고히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역사적 실재였다고도 볼 수 있다. 곧 이스라엘을 향한 앓수르의 무자비한 압제와 폭정의 역사적 고난은 달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이른바 '위장(僞裝)된 축복(祝福)'이었음을 이스라엘은 미처 깨닫지 못하였음을 함의한다.

무지하고도 믿음이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선대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사랑의 표현으로서 유월(逾越, Passover)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을 몸소 체험하고도, 그 긴 여정의 도상에서 불기둥 · 구름기둥 · 만나 등으로 그들을 한결같이 보호해 주셨던 사실을 직접 목도하고도, 이를 다 헤아리고 계셨던 하나님 사랑을 여하히 계수(繼受)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곧 하나님 사랑가운데 거하며 존재하고 있다기보다 되레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존재하고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역사 속에 앓수르는 등장하지 못했을 것이고, 위장된 축복으로써, 곧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써 이 같은 앓수르에 의한 질곡의 역사는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선 역사에 비추어 비유컨대 출애굽의 도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연약함, 나아가 그들의 배반까지 이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나이 반도에 한동안 붙잡아 두셨는데, 생각해 보면 이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더 없는 사랑이었다. 왜냐하면 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시나이 반도 유랑을 통해 넉넉히 주셨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에서 예지적 선지자들에 의한 징벌적 계시의 실현으로써 이처럼 앓수르에 의한 그 참혹한 질곡의 역사를 간직할 수 있었던 사실 또한 다름없는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고 이해된다. 본 연구는 이를 공히 위장된 축복(disguised blessing)이라고 수용하고 있다.

4.2 현 시대를 향하신 계시적 함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시대는 신앙적 트라우마의 증증에 사로잡혀 있는 듯 보인다. 이를테면 국제적으로 예기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포심이 산재되어 있고, 정치적·사상적 대립에 의한 무차별적인 테러가 처처에서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중의 폭거 내지 항거에 의한 소요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환경 및 기후변화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위기가 극도로 고조되어 가고 있는 차제에 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같은 단일민족으로서 남·북 간 내재적 골육상쟁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상호 간의 적대적 분위기가 갈수록 경직되어 가고 있고, 지속적인 군비증강은 물론 극히 소모적인 정치적 혼란의 이슈가 가일층 축적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양의 이해를 앞세운 계층 간 대립양상이 갈수록 더욱 확연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다른 한편 기독교동체[敎會]적 시각에서는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 곧 기업구조적인 행태를 답습하여 교회는 사기업화 되어가고 있고, 때로는 사회적 물의를 촉발하여 지탄의 대상으로 적시되기도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교세는 갈수록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좌시하고 오로지 기복신앙에로의 실질적 삶의 구현에만 몰입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주시할 때, 과연 현 시대에 앗수르의 실체가 그 어떠한 모습으로, 그 어떠한 시기에, 그 어떠한 징벌의 수위로, 그 언제 도래할지 사뭇 두렵기만 한 상황이다.

모름지기 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묵시적 계시는 앗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신 그 시대와 사뭇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미 앞서 앗수르의 정복역사 및 시대적 사실(史實)을 되짚어 보는 중에 추단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전과 다름없이 현재의 역사 속에서도 어김없이 그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불변의 진리라 할 때, 앗수르 및 이스라엘과 같이 현 세대마저도 스스로가 유일하신 여호와와의 주권적 관할 하에 놓여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경우라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추상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임을 함의한다.

오직 한 분뿐이신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리고 현세와 내세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 시대를 향하여 회개(悔改)와 하나님께로의 신앙적 귀의(歸依) 및 그 결단을 참고 인내하시는 중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신다고 판단된다.

앗수르의 그 참혹했던 정복역사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장차 도래할 메시아에 의한 새왕국 건설에 대한 신앙적 사관은 상호 불가분의 견련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적 공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기능하고 있음을 바로 새길 수 있다.

그 기로에서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disguised blessing)을 바로 분별하여야 할 것이 시

대적 대의라고 판단되는 바, 이에 본 고의 결과에 기하여 재차 크리스천 된 우리 모두의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고자 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십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 하셨도다”(시07:12),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최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겔18:30)

참고문헌

- 강성열, *고대근동 세계와 이스라엘 종교*, 한울출판사, 2003.
- 김태훈, “앗시리아 역사문서와 사마리아의 함락”, 제35회 성서학 심포지움 발제 1, 2003.
- 심종석, “페르시아 아케메니아 왕조의 세계경영사적 의의”, *로고스경영연구*, 2009, 7(2), (2009), 21-55.
- _____, *구약성서의 이해*, 이컴비즈넷, 2004.
- Anderson, B. W.,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Christian Digest, 2005.
- A&E TV Networks, *Ancient Mysteries : Myths and Legends*, A&E, 2008.
- _____, *The New Explorers : Secrets of an Ancient Culture*, A&E, 2008.
- Anglim, S., et al., *Fighting Techniques of the Ancient World*, Amber Books Ltd., 2002.
- Ascalone, E., *Mesopotam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 Bauer, S. W., *The History of the Ancient World*, W. W. Norton & Co., 2007.
- Broadman, J.,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Cambridge Univ. Press, 2008.
- Bryce, T., *The Kingdom of the Hittite*, Oxford Univ. Press, 2005.
- Mcintosh, J. R., *Ancient Mesopotamia*, ABC-CLIO Inc., 2005.
- Nardo, D., *Peoples and Empires of Ancient Mesopotamia*, Lucent Books, 2009.
- Phoenix Learning Group, *Ancient Mesopotamia*, PL&G, 2008.
- Roaf, M., *Mesopotamia and the Ancient Near East*, Andromeda Oxford, 2008.
- Schomp, V., *Ancient Mesopotamia*, Scholastic Inc., 2004.
- Smith, G., *Assyria*, Elibron Classics series, 2006.
- Smith, P., *The Ancient History*, Elibron Classics series, 2005.
- Wilke, *Jesaja und Assur*, Dieterich Leipzig, 1995.
- www.thebritishmuseum.ac.uk

[저자소개]

경희대학교 졸업(공학사).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영학석사·박사학위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순천중앙교회에서 유아세례를, 서울홍릉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현재 대구 남산교회를 섬기고 있다. CBS 패널, 크리스천투데이 객원논설위원으로 그리고 뉴라이트연합회원으로 활동하였다. 평신도 시각에서 『구약성서의 이해』를 발간하여 교계와 학계의 참신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신앙칼럼으로서 「국밥 한그릇과 컴퓨터」,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수미산에서 바라 본 갈보리 산의 저녁노을」, 「평신도 지도자에게 길을 묻다」 등 수편이 있다.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에 재직중이다.

The God' Plans for Assyria History and Revelational Undertones toward the Present Christianity

Shim, Chong Seok*

〈Abstract〉

Assyria was founded by colonists from Babylon and for many centuries was subject to, or in conflict with, Babylon. Assyria was a world empire from B.C.884 to the fall of Nineveh its capital in B.C.612. Under king Sargon II, that in B.C.721 conquered Israel's Capital of Samaria and carried away as captives to Assyria what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Forfeiture of Israel'. At that time,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was extorted, invaded, conquered, and taken captive primarily by the Assyrian monarchs, Tiglath-Pileser III (Pul) and Shalmaneser V. The later Assyrian rulers Sargon II and his son and successor, Sennacherib, were responsible for finishing the twenty year demise of Israel's northern kingdom. Under the Bible's are deal with these historical event as following. "The king of Assyria captured Samaria and deported the Israelites to Assyria. He settled them in halah, in gozan on the habor river and in the towns of the medes, all this took place because the Israelites had sinned against the LORD their God, who had brought them up out of Egypt from under the power of pharaoh king of Egypt. They worshiped other gods, and followed the practices of the nations the LORD had driven out before them, as well as the practices that the kings of Israel had introduced. So the LORD was very angry with Israel and removed them from his presence. Only the tribe of Judah was left". Relating to the these events, this paper' are so called 'Disguised Blessing' based on the Isaiah.

Key words: Assyria, Northern Kingdom of Israel, Disguised Blessing, Isaiah

* Department of Foreign Trade, Daegu University.